

탐욕과 사기의 굴레



이승환의
어드바이스

누구나 돈을 좋아한다. 사람은 대가 없이 얻는 이익에 강하게 끌린다. 심리학적으로도 ‘공짜’나 ‘횡재’라는 말은 쾌감 중추를 자극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눈앞에 지나치게 매력적인 제안이 나타나면 평소 침착한 사람도 일단 마음이 들뜨고 경계심이 풀어지기 쉽다. 이런 심리를 노린 것이 각종 투자 사기와 ‘뚝박의 행운’을 방자한 사기 수법이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 조 원대 사기극 ‘조희팔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조희팔 일당은 2004~2008년 사상 최대 규모의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였다. “의료기기 렌탈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40%의 이자를 주겠다”는 터무니 없는 조건으로 무려 7만명에게서 4조 원 넘는 돈을 끌어 모았다. 조희팔 일당은 범행 이후 종적을 감췄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물을 흘렸다. 피해자 중에는 교장, 교수, 판사, 경찰 등 사회 지도층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 다들 속았을까”라며 개탄했다. 결국 “누구든 탐욕 앞에서는 눈이 멀 수 있다”는 냉혹한 진실을 확인했다.

사기범들은 “지금 안 하면 영영 못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찬스예요” 같은 말로 피해자를 다급하게 몰아붙여 빠른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한다. 피해자는 조급한 마음에 냉정을 잃고 덥석 계약서에 사인해 버리기 쉽다. 지나친 자신감과 과신도 문제다. 스스로 나는 남들보다 투자에 밝아라고 믿거나, 내부 정보를 아는 ‘선수’라고 착각하는 순간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투자 사건인 폰지(Ponzi) 사기 역시 예외 없이 탐욕과 과신이 만들어 낸 산물이다. 2008년 미국에서는 금융인 버나드 메이도프가 수십조 원대의 초대형 폰지 사기를 벌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고정 고객들에게 연 10%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수십 년간 제공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뒤에 들어온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했다. 많은 글로벌 부호들과 기관투자자까지 그의 고객이었다. 너무 오랫동안 일관되게 좋은 성과를 내는 투자처는 오히려 의심해야 마땅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투자자들은 자기만족에 빠져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

‘낮은 위험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은 99% 사기라고 봐야 한다. 투자 세계의 기본 원리는 고수익일수록 고위험이란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누군가 “절대 손해볼 리

없다”고 장담한다면 그 말 자체가 이미 거짓이다. 세상에 위험 없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변에서 “남들은 모르는 확실한 기회”라는 말이 들리면 우선 의심부터 해야 한다. 잠깐 체면이 구겨지더라도 금융전문가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 문의해 그 투자가 정당한 지 따져봐야 한다. 선뜻 남을 믿고 거액을 맡겨 버리는 것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사기범들이 그럴듯한 권위와 확신에 차서 투자자를 현혹할 수록 피해 규모는 더 커진다. 이미 어떤 대상에 투자했는데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든다면 미련 없이 발을 빼는 용기가 필요하다. 손실이 발생했음을 일찍 인정하면 작은 피해로 끝날 일을 욕심과 집착 때문에 견잡을 수 없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한 번 잃은 돈은 잃은 것일 뿐 배당한다고 돌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손실을 빨리 인정하고 발을 빼야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눈앞의 유혹을 이겨내고 자신의 탐욕을 직시해야만 사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짜 치즈는 쥐뿔에만 놓여 있다’는 서양 속담이 있듯 너무 달콤한 제안에는 처음부터 경계심을 갖는 것이 최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 '사기 프로파일링' 저자

수익률 ±2배와 손절매 권하는 사회



김연세의
정책사회부

이번은 없었다. 외국인은 결국 팔아 차웠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지주의 수직상승 국면에 끼여든 레버리지 신상(新商). 게임의 결과는 개인 패. 그냥 진 게 아니라 참패하며, 이 상품 도입에 따른 과징이 사회적 문제로 번졌다.

외국인의 입장에 한번 서 본다. 한국 금융당국이 투기성 짙은 파생상품의 출시를 돌연 승인했다. 본주 상승분을 2배(하락분도 2배)로 쳐준다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다. 그리고 코스피가 5000 넘나든다는 소식에 물려든 개인. 이 레버리지 ETF에 수천씩 넣은 사람들이 많다. 여기에서 페르시아만을 향한 백악관의 변덕이 키운 변동성. 이런 기회 자주

오는 게 아니다. 큰손들이 큼직하게 나눠 가질 찬스. 팔고 퇴장한 선수는 외국 사람이 아닌 해외(다국적) 펀드.

국내 기관 입장을 추정해 본다. 본주에 더해 ETF까지, 국민적 열풍에 힘입어 수개월간 하루가 멀다 하고 폭발한 거래량. 뒤따르는 거래·운용 수수료. 이는 기관투자자 중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이 챙기는 몫. 또 주가의 이례적 고공행진에 더없는 공매도 기회. 외국인 이 날 잡아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괜찮다. 굴리는 돈 막대한 연금금이 빈 독 채워 준다. 정부 측 위치에 서 본다. 대학 새내기부터 여든 노인까지 스마트폰 MTS 창 들여다보는 게 일상. 국민 재산의 손익에 관계없이, 거둬들이는 증권거래 세수입이 어마어마하다. 주경 집행으로 축소된 재정여력 만화에 일조한다.

과거증권사 객장에 울음소리 들리면(유모차 고객 뱃댄 일각의 비아냥) 끝물이라 했다. 아주 불쾌한 주식 격언이다. 또다시 그때와

닮아 있다. 자본시장 내 졸렬한 역사의 되감기다. 아나나 다름과 외신의 조롱 섞인 평가까지 나오는 시점에 이르렀다. 단, 내국민의 부(富)를 그들 국적의 펀드가 흡입해 간 사실에 대해선 모르쇠. 한술 더 떠, 한국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나라도 있다.

가정해 본다. 만약 국내 시장에 공매도·인버스 같은 게 없다면. 또 신용·미수 거래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쉽게 수익 낼 수 있을까. 게다가 개인 다수가 급전 아닌 여유자금으로 중장기 투자한다면. 못판다 그들은. 그래서 공매도 등이 존재하고 옵션에 선물은 물론, 희한한 파생상품이 배출되는 것. 그리고 ‘손절’이라는 말. 손실 줄여야 한다며 누군가 매도를 권유한다. 실제 팔면 손실 확정인 것을. 뺏으면 이득 본 거고 잃었으면 그냥 손해일 뿐. ‘아서 손해 보श्य요.’ 꾸민 글귀와 갑절 레버리지 등은 능란하게 현혹한다. 재미를.

/ 세종=kys@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7일 (음 6월 2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격입니다. 60년생 큰 일을 꾸꾸지 말고 분수를 지키세요. 72년생 외롭고 서러운 마음입니다. 84년생 안정을 취하고 힘을 비축하세요.



49년생 건강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61년생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73년생 칭찬이나 용돈을 받습니다. 85년생 찾고 있는 것은 동쪽으로 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다.



50년생 하는 일마다 길하니 재물이 저절로 쌓일 것입니다. 62년생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74년생 뜻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86년생 주위의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51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지 않는 운입니다. 63년생 노력하지만 보람없이 무너집니다. 75년생 재난과 수난을 겪게 되니 수심만 가득하다 하겠습니다. 87년생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52년생 원통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64년생 귀하의 사업이 차차 진전이 있습니다. 76년생 희망하는 직종을 찾았으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88년생 매사가 기로에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53년생 새로 시작하는 사업, 일사천리로 풀립니다. 65년생 자식에게 경사가 있습니다. 77년생 인연이 없으니 잊는 것이 상책입니다. 89년생 연수가게 되어 이상형이 성 만나게 됩니다.



54년생 하던 일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운입니다. 66년생 뭇든지 능동적으로 임하세요. 78년생 매사 지치고 희망이 안보여 쉬고 싶습니다. 90년생 싸움이 시작되면 폭행으로 번집니다.



55년생 동남간에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67년생 교통사고를 조심하세요. 79년생 일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나아가지는 마세요. 91년생 직장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56년생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8년생 승진운이 매우 강합니다. 80년생 외출을 삼가하세요. 92년생 전화위복이란 이럴때 쓰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57년생 허황되게 갖지 못할 물건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69년생 병을 앓고 있다면 그것은 질병입니다. 81년생 의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습니다. 93년생 좋지 않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8년생 유혹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70년생 공로를 취하려는 자리라 의지가 솟구칩니다. 82년생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94년생 기분좋은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59년생 가까운 이들이 떠나는구나. 기도하세요. 71년생 매사에 조심하세요. 83년생 두번, 세번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5년생 부정한 방법은 마음에 담아 두지 마세요.



김상회의四季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말을 해도 긍정의 바이브와 힘을 주는 사람들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젠슨 황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얼마 전에도 한국을 다녀갔지만, 유명 연예인 못지않은 재계의 셀럽인 것이다. 그 유명한 차진 회동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IT 재벌 중에서도 대만 출신이라 같은 동양적 정서도 있어서겠지만 남다른 안목과 견식, 유머와 통찰을 보여준 사람이다. 은혜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한강의 기적을 높이 평가하는 느낌도 받았다. 지난해 한국방문을 앞두고 엔비디아 본사 공식 유튜브 계정에 돌연 ‘한국의 차세대 산업 혁명’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을 때도 역사상 가장 빠른 산업화를 이룬 기적의 나라로서 칠강, 반도체, 전자제품, 선박, 자동차, 그리고 기술을 통해 전 세계 각국에 한국의 이름을 알렸다면 진정을 담아 칭찬한 것이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과거의 최빈국에서 OECD 10위 안에 드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나열한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정도가 그 정도인지까지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며 필자 역시 그러했다. 외부의 그가 나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한 것 일으켜 준 것이다. 세계적으로 성공을 했음에도 어려운 적 과거를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정작 우리도 기억하지 않는 은혜를 소환하는 그를 어찌 달리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역학도로서 살펴본 그의 사주는 일단 임술(壬戌) 일주에서 그 특징이 명확하다. 강한 백호살의 기운이 위기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버텨내는 강한 승부욕을 보여준다. 과거 그가 여러 번 파산 위기를 뚫었음에도 위기를 돌파하는 모습은 그의 사주에서 보이는 식상생재(食傷生財)의 기운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6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7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판형

결합형스도쿠110

종이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9	2	9	7	1	2	8	8
7	1	8	8	9	2	2	6	9
9	2	8	8	2	6	1	9	7
2	8	6	2	1	8	7	9	9
1	2	9	7	8	9	6	2	8
8	7	9	2	6	9	8	1	2
8	8	2	1	9	2	9	7	6
2	6	1	9	8	7	9	8	2
9	9	7	6	2	8	8	2	1

1	9	8	2	8	2	7	9	6
6	2	2	9	9	7	8	1	8
7	8	9	8	6	1	2	9	2
2	7	6	9	9	8	2	8	1
8	1	9	2	7	8	9	6	2
8	9	2	1	2	6	9	7	8
2	6	1	7	8	9	8	2	9
9	8	7	8	1	2	6	2	9
9	2	8	6	2	9	1	8	7